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이화  
동창**

2021 Detroit  
**RISE and SHINE**

Oct. 21 – 24, 2021  
Sheraton Detroit Metro Airport Hotel



# CONTENTS

3 RISE and SHINE

4 Ewha NOW

5 초대의 글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6 축하의 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이사장

8 2020 달라스 영상총회 참가 후기

9 지회 소식

18 Ewha 장학금 기금 소식

19 연도별 총회 개최 지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리스트

20 2021 디트로이트 총회 안내 및 일정

21 2021 디트로이트 총회 참가 신청서

## 2021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보

발행인\_ 황수영(화학 89졸)  
편집인\_ 황수영, 한혜정(국어국문학 90졸)  
편집디자인\_ 한혜정  
표지디자인\_ 윤경연 그래픽(cadyky@naver.com)  
인쇄\_ 서라벌이앰피(srbenp@daum.net)  
사진\_ image taken from Wikimedia,  
photo by Nicholas Domingo(우측 상)  
photo by Michael Tighe(우측 하)

2021년

디트로이트, 미시간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Rise and Shine!

함께 손잡고 일어나  
찬란한 빛을 비추어봅시다.

산업도시였던 과거를 벗어던지고  
미래의 혁신도시로  
다시 비상하고 있는 이곳,  
디트로이트에서  
이화의 부흥을 위해  
이화동창의 빛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모두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십시오.  
이화동창의 빛이 더욱 커지고  
찬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Rise and Shine!



# RISE and SHINE



## 표지설명

The Spirit of Detroit 는 신을 상징하는 '빛이 뿜어나는 금색의 구'와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가족 모형'을 양 손에 들고 있는 디트로이트의 상징입니다. 또한 동상 뒷편에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고린도후서 3:17 말씀이 새겨져 있어, 사람의 영을 통한 신의 존재는 가장 숭고한 인간관계, 즉 가족 안에서 나타난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디트로이트에서 우리 모두는 '이화' 라는 가족 안에서 찬란하고 뜨거운 열정의 빛을 만들어 그 빛이 이화의 부흥에 한 몫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 2020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사립대부문 2위 선정

여러 평가지표에서 모교, 이화여대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생산성본부가 선정하고 발표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이화여대는 국내 사립대 부문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NCSI 조사'는 대표성을 인정받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23회를 맞이한 신뢰성있는 조사입니다. 수도권 소재 15개 사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이화여대는 전체 대학 평균보다 3점 높은 76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지표에서 사립대 평균 점수를 훨씬 웃도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 2020년 THE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 양성평가 부문 국내대학 중 1위에 올라

매년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하고 있는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국내대학 중 이화여대가 양성평등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THE 랭킹은 대학의 연구 업적과 같은 평가지표뿐 아니라 양성평등, 빈곤퇴치 등 17가지의 평가지표를 통해 대학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유일한 글로벌 랭킹입니다. 이화여대는 1위로 평가된 양성평등 이외에도 빈곤종식, 건강증진과 웰빙, 경제성과와 좋은 일자리,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위상을 널리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2020년 라이덴 랭킹에 국내 대학 중 2위

대학 연구력을 나타내는 논문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세계대학 순위에서 2020년에 이화여대가 국내대학 중 2위에 올랐습니다. 라이덴 랭킹은 다른 대학순위가 평판도를 중시하는 것과 달리 오직 논문의 수와 논문인용도의 비율을 따져 순위를 산정하는 점이 특징으로, 대학별 연구력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세계 9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세계 대학이 발표한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상위 논문 비율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우리 모교는 명실공히 최상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화여대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으로 라이덴 랭킹에서 국내 종합대학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 ●●● 우리 모두 높이 떠올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공동체를 선도하자는 바람을 담아 함께 'Rise and Shine'을 외치려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황수영(화학 89졸)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자동차의 도시(Motor City)'라 일컫는 디트로이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980년, 1992년, 2001년에 이어 미시간에서는 4 번째로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미국 3대 자동차업체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서, 오대호 중 하나인 Lake Erie로 흘러들어가는 Detroit river를 사이에 두고 캐나다와 마주보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1920년대에 설계된 이탈리아 르네상스풍의 DIA(Detroit Institute of Arts Museum)와 20세기 Fox사의 창립자인 William Fox가 세운 화려한 인테리어의 Fox Theatre, 수많은 스타 가수들을 배출한 Motown Records와 같은 문화적 감수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신동진(섬유예술 85졸)

사랑하는 이화동창 여러분, 팬데믹 환경 속에서도 주위에 따스한 이화사랑을 전하고 계실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다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죠!

지난 해 갑자기 밀어닥친 COVID-19의 폭풍으로 북미주 지회연합회 60여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영상총회를 치른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지나 디트로이트 총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면총회가 가능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만, 백신과 집단면역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디트로이트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총회를 준비하고 계실 황수영 회장님과 디트로이트 지회 동창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멀리 텍사스에서 응원을 보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북미주 이화동창들의 특별한 사랑의 연대입니다. 한 단체의 영향력은 그 단체에 속한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력에 의해 좌우되며, 단체의 화합과 확장은 소통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북미주 동창 여러분들

지난 2000년대 후반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동차 업계가 불황을 겪으면서 디트로이트시 당국이 파산을 선고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른 디트로이트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이화인들도 높이 떠올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자는 바람을 담아 올해 총회 주제는 'Rise and Shine'으로 정했습니다.

아직은 일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총회의 개최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총회 개최예정기간인 10월 21일에서 24일 경에는 집단면역 형성으로 동창 여러분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직접 뵈고 우리들의 이화 DNA를 서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가족을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하며, 올 가을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동창분들을 디트로이트 총회에서 만나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21년에는 북미주 동창 여러분들과 더욱 더 활발히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과 더욱 더 활발히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소통을 통한 화합, 화합을 통한 사랑의 이화연대를 더욱 더 굳건히 세워 이화동창의 자랑스런 역사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누며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이화인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이화사랑이 넘치는 북미주 총회에서 3박 4일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평범한 일상을 떠나 교정을 거닐며 꿈을 키웠던 푸른 청춘으로 돌아가는 시간여행, 일년 중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모교의 총장님과 존경하는 멋진 선배님들, 그리고 사랑스럽고 이쁘기만 한 후배님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되고 추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졸업 후 모국을 떠나 먼 이국 땅에서 이화를 다시 만나는 일은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황화방 안에 피어났던 이화가 올해는 북미주 디트로이트에서 만개되길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 속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은미(사회학 81졸)

미주지역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 이화여자대학교 제 17대 총장 김은미입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새 봄, 135년의 역사를 지닌 이화의 17대 총장으로 취임해 봉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화가 한국을 넘어 세계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화에서 배운 기독교 정신의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며 이화의 이름을 드높이고 계신 동창분들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모교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간절하신 분들이 해외 동창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 뵙고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지면을 통해 대신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북미주 동창회보는 해마다 북미주에 계시는 동창분들이 여러 지회의 소식을 전하고 총회 개최와 함께 발행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모교를 떠나 해외에서도 이화의 이름으로 소통하고 이화정신을 나누려는 동창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총회는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COVID-19로 인한 상황이 하루 빨리 나아져서 동창 여러분 모두 디트로이트에서 직접 뵙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면을 빌어 이번 행사를 위해 봉사하시는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님과 각 지회 동창회장님들, 임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는 모든 동창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장 임기 기간 동안 동창 여러분을 비롯하여 이화의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명문 이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은 전 세계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편히 만나던 가족과 지인을 만나지 못하고 당연했던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학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재택근무가 시행

### ●●● 이화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동창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명문 이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화 역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과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비대면 교육은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낯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구성원들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철저히 대응하여 양질의 교육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OVID-19가 촉발하였지만 빅데이터, AI, IoT 등 혁신적인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의 기류는 이미 사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회에서 대학이 수행했던 역할과 관계 맺음이 모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화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화는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식 콘텐츠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최적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지키고, 교육의 방법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감으로써 빛나는 이화의 후배들을 혁신을 주도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인재로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학습하는 시대, 지식보다는 경험과 공감을 나누는 시대를 맞아 다양한 학위·비학위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교육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생애 전환기에 격려와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학생뿐 아니라 동창 여러분과도 오래도록 함께 하는 이화,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이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화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동창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명문 이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모교의 빛나는 앞날을 위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모쪼록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곧 직접 찾아 뵙고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남상택(물리학 74졸)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화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도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는 총회를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봉사하시는 황수영 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동창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이화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행사가 동창 간의 강한 유대감으로 더욱 발전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화 동창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1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의 주제인 'Rise and Shine'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밝은 앞날이 펼쳐지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 안에서 읽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중흥을 이루었듯이 이화동창들도 다시 한 번 비상하여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COVID-19로 인해 총동창회도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달라스에서 열린 총회도 화상회의로 참여하였고, '동창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행

### ●●● None of us got here by ourselves. None of us made it to Ewha alone.

Greetings graduates, partners, co-workers, and friends of Ewha!

Welcome to this gathering of like-minded and large-hearted lovers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Detroit alumnae welcome you to the 2021 gathering of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Let us appreciate the abiding love and hard work that the Detroit alumnae have contributed to guarantee this stunning success of our gathering! When you see or greet these alumnae, please make sure they know of our individual and collective gratitude. In my time with you alumnae, I have learned and relearned one crucial life lesson: None of us got here by ourselves. None of us made it to Ewha – or our successes afterwards – al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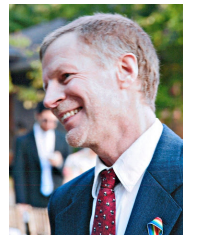
We have had mentors, parents, teachers, bene-

### ●●● 이화동창들도 다시 한 번 비상하여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가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일상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마치 지근거리에서 만난 듯이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할 수 있어 작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동창여러분, 135년의 역사를 통해 24만 동창들은 세계 곳곳에서 사랑과 헌신, 나눔과 섬김의 이화정신을 계승해오면서, 받은 사랑을 다시 이웃에 베푸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정과 푸르름이 넘치던 시절을 모교 캠퍼스에서 함께 지냈다는 강한 유대감을 지닌 북미주의 많은 동창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화정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없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북미주 지회연합회가 가장 큰 지회연합회로서 해외지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동창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새로운 명문 이화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계신 김은미 신임 총장님과 함께 모교가 다시금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배들의 연륜과 지혜, 후배들의 젊음과 열정이 모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세대 동창의 뜻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기도를 보내주시는 동창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이사장  
Marc Mullinax

factors ; champions in our lives to help us achieve our goals, often-times beyond our wildest dreams. Having taught at Ewha recently, I have met students for whom people like you are their champions. How did you do this? Perhaps you knew (or know) an individual student and take an active interest in her life. Perhaps your Alumnae Association supports a fund, or perhaps you began or contributed to other funds.

I invite you to reflect on how far you have come because of some influential person. And I invite you to become someone's champion. With our history of being championed by others, let us gather for this meeting with the spiritual obligation that we are now to champion others UNTIL NO WOMAN IS LEFT BEHIND !



# 이 화 인 의 새로운 도전, 감동으로 물결치다

팬데믹으로 몹시 어수선한 상황에서 2020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어떻게 개최될 것인가는, 다음 개최지로 선정된 디트로이트 지회장으로서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의 역할이 더해져서 이번 영상총회를 더욱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동창들의 참여를 유도해 가면서 영상으로 총회를 시도하는 것이 무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 북텍사스 지회의 아이디어가 궁금했습니다. 비단 줌미팅의 한계뿐 아니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지, 많은 현란한 영상물이 출렁이는 이 세상에서 과연 동창의 시선을 몇 초나 잡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지회장들과 채팅방에 모여 서로 격려하며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작품을 만들듯 북텍사스 지회장님이 부드러운 리드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통로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동창들이 처음으로 줌미팅을 시도했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반가이 인사를 나누고 공간을 초월하여 이렇게 얼굴을 익히는 것이 흥분도 되었습니다.

탤런트 쇼와 합창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지회 내에서도 줌미팅을 하면서 열린 토론과 각종 아이디어로 박장대소 하기도 하고, 그동안 간혀 살면서 갈급했던 소통 특히 정을 서로 나누는 점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들 흥뻑 빠져들었습니다. 품질이야 어쨌든 처음으로 영상으로 내 모습, 내 노래를 담아 보



▲북미주 전역에서 모아진 동창들의 목소리로 수놓아진 이화 교가

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팬데믹이, 동창회가 아니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었습니다. 합창곡인 'Heal the World' 를 받아 보고 영어로 된 가사를 떠듬떠듬 수 차례 읽어 가면서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보내기 창피할 정도의 음치, 박치 노래가 여러 동창들의 목소리에 더해져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명실공히 거듭나는 것을 보고 감탄을 넘어 감동의 물결이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북미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음성이 하나로 모여져 고운 물결로 만들어져 퍼져 나갔을 때에는 감동으로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탤런트 쇼가 유튜브에서 오픈이 되자마자 모두가 인맥을 총동원하여 투표를 받느라고 서로의 순발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더불어 다른 지회 영상을 보면서 한 표 응원을 보내는 애정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상총회 당일의 감동보다도 이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총회 준비에 혼신을 다하신 북텍사스 지회 여러분 덕분에 북미주 전 이화여대 동창들의 기억 속에 '어려운 시기에 생각하지 않았던 재미를 선사한 동창회'로 각인 되었으리라 결론을 내어 봅니다. 역시나 이화인의 저력과 끼가 영락없이 발휘된 영상총회였습니다.

디트로이트 지회/ 신인옥(전자계산학 85졸)

## Atlanta 애틀랜타, GA



회장 차희숙 (체육 77졸)

애틀랜타 지회는 2020년 1월 12일 총회에 모두 48명의 동창이 모여서 반갑게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019년 서기록과 회계 결산보고가 통과되었고, 차희숙(체육학 77졸) 동창이 새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소개하고 인준하였습니다.

2월 모임은 2020년 계획과 각 부서 일정 발표(선교부, 합창부, 골프부)가 있었고, 그동안 수고하신 김영례 회장님께 감사패 증정이 있었으며 지난 임원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새로운 임원진 소개를 하였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동창모임을 시작해서 비대면으로 동창소식을 보고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지회는 본교에 장학금 2천 달러를, 한인 2세 학생을 돕는 미주 한미장학회에는 천 달러의 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8월 8일에는 성정순 교수님(체육학 49졸)의 93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파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따님과 선배님들,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준비해 오신 도시락을 먹고 케익과 꽃, 선물 바구니를 전달하며 교수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집콕으로 지루하고 우울한 요즘 김영례(교육심리학 79졸) 동창이 '우울증과 화병의 차이' 라는 제목으로 유익한 강의

를 해주었으며, 많은 동창 분들을 화상으로 만날 뵈 수 있는 계기도 되어 더욱 좋았습니다. 올해는 연말 파티도 영상을 통해 친교부장인 박귀련(무용 89졸) 동창의 진행으로 게임도 하고,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해서 즐거운 연말을 보냈습니다. 상품과 2021년 동창회비는 팬데믹 상황에 맞추어 드라이브 쓰루로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에도 애틀랜타 지회 동창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2020년 1월에 가졌던 애틀랜타 지회 총회모습

## Baltimore 볼티모어, MD



회장 성주연 (약학 66졸)

볼티모어 지회 동창들을 일년 넘게 오랫동안 직접 만날 수는 없었으나, 2020년 11월 12일에 줌미팅으로 당시 회장님인 강성려(사대 67졸) 동창의 사회로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준비하신 자료화면을 통해 지구촌 곳곳의 수많은 동창들과 함께 이화교가를 제창하였고 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어 회장에 성주연(약학 66졸) 동창이 선출되었으며 회장 임기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또한 부회장은 이진숙(가정학 70졸), 총무 박은선(법학 82졸), 회계 이영희(약학 63졸)와 지명희(약학 71졸)로 새 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볼티모어 지회의 새해 첫모임은 1월 27일 줌미팅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각자 팬데믹으로 집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나누고 바깥생활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루하지 않고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방식들에 대하여 팁을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집에서 하고 있는 운동 방법, 취미 활동 등의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갔고, 온라인 미팅이라는 낯설었던

시간이 금세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김영주(약학 61졸) 동창의 구슬픈 하모니카 연주로 '오 대니보이'를 들으며 옛날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줌미팅을 자주 열어 자칫 우울해지기 쉬운 팬데믹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로 건강을 챙겨주면서 동창들과의 유대를 다지기로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각자 팬데믹을 극복하는 팁을 나누고있는 볼티모어 지회의 영상모임



## Boston 보스톤, MA



회장 신은경 (법학 88졸)

보스톤 지회도 팬데믹으로 인해 계획했던 2020년의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신년 파티와 여름 바베큐파티를 취소하게 되어 그대신 계획했던 비용으로 뉴잉글랜드 감리교 여성교회와 함께 수제 마스크와 개인 위생용품을 포함한 care kit 350개를 제작하여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교 이민교회들과 홀리스들을 위해 헬터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중남미 이민자들이 COVID-19로 직장을 잃고 감염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몇몇 동창님들은 개인적으로 성금을 보내 주셔서 천 오백 달러의 구호기금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도토리국수와 백정희 동창이 기증한 콩국수 가루로 총 8백 50달러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였고,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진 젊은 한인 학생들을 돕기 위해 김흥혜 고문님의 2천 달러 기부를 시작으로 많은 동창님들이 장학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년보다 훨씬 많은 5천 달러의 장학금을 적립하여 재정적인 도움이 절실한 학생 5명을 선발하여 천 달러씩 이화여대 동창회 보스톤 지회의 이름으로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 California North 북가주, CA



회장 이명완 (정치외교 81졸)

북가주 지회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동창들의 모임을 중단하지 않고 매월 월례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매월 이삼십 여명의 동창들이 줌을 통해 모여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본인이 먹는 점심을 소개하고 조리법을 알리고, 한국음식, 꽃 이름 이야기 등 간단한 오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줌에 서툴러서 월례미팅 전에 여러차례 테스트 미팅을 가졌지만, 이제는 대선배님들께서도 거뜬하게 줌 미팅에 참석하시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월례 모임은 크리스마스 파티로 계획되어 성탄을 축하하는 복장으로 참석하여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COVID-19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동창들의 안녕과 건강을 묻고 연락처도 업데이트 하기 위해 전화 통화로 'Reach-out-Campaign'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영상 총회 달린트쇼를 위해 20여 명의 동창들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교회 잔디밭, 동창님 덕의 정원, 공립공원 등에 모여서 율동 연습을 하고 동창들이 준비해 온 음식



▲ 중남미 이민자들을 위한 구호 기금과 물품



▲ 이민교회와 홀리스 헬터에 전달된 care kit

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뭉치는 보스톤 이화인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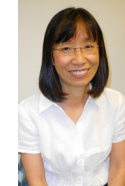
팬데믹 상황이라도 저희는 동창 카톡방을 이용하여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혜들, 재미있는 볼거리들을 나누며 비대면일지라도 더욱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챙기며 이화인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5일에는 연말 총회를 줌으로 진행하여 일년을 마무리하였고, 서로를 격려하며 내년에는 건강하고 정다운 모습으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으로 피크닉을 하면서 열심히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Youtube 에 올린 북가주의 달린트쇼 비디오가 3,291개의 검색을 받았고, 405개의 '좋아요'를 받아 인기상을 획득했습니다. 인기상을 받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 세계에 퍼져있는 가족, 지인들의 협조를 받아 한 표 한 표 얻어가는 소중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이화는 하나'라는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화는 하나이며 중단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북가주 지회는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 대선배님들의 깜찍한 크리스마스 복장으로 더욱 즐거웠던 12월 월례모임

## Cleveland 클리블랜드, OH



회장 문성애 (생활미술 81졸)

노회용(약학 82졸)회장단이 이끌었던 클리블랜드 지회는 2020년 초반까지 만나서 점심도 함께 나누고 한 테이블에 앉아 오래도록 대화를 했던 즐거운 대면 만남을 많이 가졌지만,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사태 이후 4월부터는 비대면 동창 모임을 추진하여 계속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모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의논한 뒤, 10월에는 이전 클리블랜드 지회 회원으로 계시던 김영례(교육심리학 79졸) 동창이 "우울증과 화병의 차이" 라는 주제로 강의를 마련해주어 귀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문답 시간도 가지는 등 유익하고 보람찬 시간을 보내어 저희 지회 동창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를 더욱 위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영상이

라는 장점을 살려 전세계에 흩어진 이전 클리블랜드 지회 회원들을 모처럼 영상으로 만나는 행복한 시간도 가졌으며, 새 회원도 늘어나 모두 기뻐했습니다. 2021년에는 서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빠른 시일에 만나 예년과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회원들 모두 소망하고 있습니다.



▲ 비대면영상으로 강의도 듣고 전세계 동창들도 만나고 있는 클리블랜드 지회

## California South 남가주, CA



회장 남궁봉일 (체육 81졸)

2020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우리 모두를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의 확산을 지켜보며 아무리 인간의 힘이 강하다 해도 결국 창조주께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였습니다.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생활 속에서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방법, 건강과 가족, 친구의 소중함, 만나지 않고 소통하는 방법,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 그리고 희망과 사랑을 배우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눔과 배려가 절실했던 2020년,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남가주 동창들의 동창회 사랑, 이웃 사랑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모교의 후배들, 북미주의 유학생 후배들 그리고 남가주의 동창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며 기쁨의 한해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라면'의 찌모습을 보여 주신 동창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단순하고 검소하게 사시면서 후배들의 학업을 위해 아낌없이 장학금을 기부해 주셨으며, 남가주 합창단 동창들께서는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웃돕기 모금'을 시작해 어려움

천 달러 씩 총 3천달러를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남가주 지회에는 천 사백명 정도의 동창이 계시고 평균 연령은 70-80대이나, 100세를 바라보는 대선배님들도 영상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신문 칼럼에 글을 쓰고 책도 발간하는 등 여전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어 참으로 자랑스러운 이화여대 졸업생의 모습이 지역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치러보는 영상총회를 위해 비대면이 추가 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준비과정에서부터 동창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문희(기약 67졸) 단장이 이끄는 남가주 지회의 많은 합창단원 여러분은 영상총회의 교가와 합창에 아름다운 음성을 더해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으며, 조남화(간호학 63졸) 동창이 이끄는 선교부에서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동창 선교사들에서 계속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는 등 남가주 지회는 소모임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수연(교육심리 96졸) 동창과 아들김찬



▲ 박진향(사회 88졸) 동창과 딸 박하나



▲ 신수연(섬유예술 90졸) 동창과 딸 김보연



## Denver 덴버, CO



회장 김선희 (도서관 94층)

덴버 지회는 매년 초 떡국모임으로 동창회의 공식적인 모임을 시작하고, 봄소풍과 가을소풍을 통해 동창들과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만든 뒤 연말 모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들어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1월 떡국모임만 제대로 할 수 있었고, 그 밖에 계획했던 소풍이나 기타 공식적인 모임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대신, 2020년 달라스 영상총회에 보낼 교가와 합창곡 연습을 위해 변윤미, 주혜원, 김윤미 그리고 김선희 이렇게 네 명의 동창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모여 같이 연습하고, 녹화하여 총회에 보냈습니다. 또한 다섯 명의 덴버 지회 동창들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하이킹을 가서 콜로라도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임 내내 빨리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어 자주 만나고, 다음에는 많은 동창들이 함께하는 소풍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 콜로라도의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한 덴버 지회의 가을 소풍

## Detroit 디트로이트, MI



회장 황수영 (화학 89층)

아름다운 미시간의 가을이 한창이었던 2020년 10월, 디트로이트 지회는 실내모임만을 가지던 예년과 달리, 팬데믹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컨셉의 동창 모임을 가졌습니다. 번개팅으로 야외에서 준비된 이번 모임은 공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각자 개인 방역에 힘쓰면서도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짐으로써 동창들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원진들이 점心和 간식을 준비해서 동창들에게 대접하는 번개팅의 형식으로 준비되어 갑작스럽게 모임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졸업생인 대선배님들부터 졸업 후 바로 미시간으로 유학 온 풋풋한 새내기 동창회원들까지 25여 명의 많은 동창들이 모여 2021년 디트로이트 총회 준비를 위해 단합된 '이화인'으로서 고무된 모습으로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외, 지회의 주된 활동들은 2021년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개최 준비와 장학금 및 후원금 모금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당초 계획되었던 바자회가 팬데믹으로 인해 실내 공간에 일정인원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어 무산될 뻔한 위기에 처해 저희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단 동창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모아주신 물품들을 잘 분류해서 사진을 찍어 여러 웹사이트에 올리고, 디트로이트 인근과 앤아버 지역에 판매 담당자를 각각 선정해 지역에 가까운 구매자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매

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비대면을 원칙으로한 구매방법을 안내하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가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조합하여 도네이션 받은 물품들 거의 모두를 판매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나 동창들로부터 후원금 모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총회 개최를 바라는 이화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회 참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행지 선정을 위하여 미시간 북부지역 답사를 마쳤고, 매월 줌미팅으로 디트로이트 지회 이사회의와 임원회의를 가짐으로써 총회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낸 디트로이트 지회

## Hawaii 하와이, HI



회장 이상희 (불어불문 90층)

하와이 지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와이 지회는 미국의 50번째 주 하와이주의 주도인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동창들이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두 번, 여름과 연말에 주로 모임을 가지는데 특히 연말 혹은 연초 모임은 장학금 모금을 목적으로 모이게 되며 COVID-19의 위험이 있기 전인 2019년까지는 소규모의 Silent Auction과 기부 등을 통해 장학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와이 지회에서 마련하는 장학금은 하와이 대학교 간호학과에 매년 한 차례 전달되며 학생 한 명에게 천 오백 달러가 수여됩니다. 장학금 지원자의 자격은 한국어를 구사하거나 한국어를 수

## Houston 휴스턴, TX



회장 한송희 (사학 85층)

COVID-19로 인해 2020년을 지치고 답답하게 지내셨던 동창님들을 위하여 2021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팔죽 나눔 잔치가 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팔죽을 만들며 추억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고 직접 전달해 드릴 수도 없어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뒤, 한인회관 주차장에서 Drive Thru로 팔죽 50개를 일일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Drive Thru라는 방식에 안전과 성의를 다한 것이라며 모두들 좋아하셨습니다. 또 바깥 외출을 하지 않으시는 동창님들께는 집으로 직접 배달을 해드리고 다른 이웃 분들에게도 저희의 사랑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번 설날에는 지난 24년간 전통으로 해 왔던 설날 대잔치를 노인회관이 아닌 노인 아파트로 직접 찾아가 떡국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사실 준비과정이나 진행이 쉽지는 않았지만, 팬데



▲ 노인 아파트에서 팬데믹 맞춤형으로 진행된 24년 전통의 설날대잔치

강했던 적이 있는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노령화하고 있는 한국 이민자들의 언어장벽의 벽을 낮추어 의료혜택이 수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2020년 말에는 COVID-19로 인해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어 동창들께 이메일로 지원금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결과 2천 4백 달러가 모금되어 2021년 장학금 목표액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의 격리 중에도 모교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신 동창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믹 사태 중에 가장 소외될 수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봉사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동창회 활동을 대면으로 할 수 없어 미술사 강좌 및 북클럽을 줌 미팅으로 진행하게 되어 선배, 후배, 동기 간에 소통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해용(국어국문학 01졸) 동창이 '오용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한국어 호칭어 및 지칭어'를 주제로 특강을 해주었으며, 미술사 특강 중에는 동창들이 필기를 하면서 듣는 등 높은 학구열도 보여 주었습니다. 휴스턴 지회는 규모 면에서는 작은 편에 속하지만 선후배간의 유대와 상호 존중은 그 어느 지회에 보다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나 이번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확인하고 뽕뽕 뭉치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휴스턴 이화여대 동창회, 그 향기가 널리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 영상으로 진행되었지만 학구열이 불타올랐던 휴스턴 지회의 미술사 특강



## New York **대뉴욕, NY**



회장 김현우  
(서양화 82졸)

대뉴욕 지회 이화동창회의 2021년 신년 하례식이 2월 9일 8시부터 90분 동안, 온라인 화상미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신년 하례식에는 회장 및 이사장 소개와 동창회 각 부서의 임원 소개가 있었고 권혜경(정치외교학 94졸) 심리치료 및 정신분석학 박사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운동'이 특강으로 있었습니다.

2021년 신년 하례식은 모두 40여 명의 선후배 동창들이 참여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고 품격있으면서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고 화상미팅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 화기애애하고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뉴욕 동창회가 2020년도 장학생 수혜자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안미상(약학 66졸) 장학위원장을 비롯, 5명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 위원들의 5회에 걸친 신중한 논의와 심사

를 거쳐 2020년 7월 한 달 동안 총 17명의 대학생 지원자 중에서 2명을, 총 5명의 대학원생 지원자 중에서 1명의 수혜자를 선정했습니다.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I'의 수혜자는 박 클레어 (Claire Park), 서 전(Jun Seo)양이 선정되어 각각 3천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대학원생 대상인 '장학금 II'에는 최



▲ 장학금 II 수혜자, 최지현(본교 성악과 2013입학)

지현(Jihyun Choi)양이 수혜자로 선정되어 4천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대뉴욕 지회 여러분의 진심어린 참여 속에 더욱 활발한 에너지를 서로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장학금 I 수혜자, 박클레어

## N.Texas **북텍사스, TX**



회장 신동진  
(섬유예술 85졸)

북텍사스 지회는 'MEGA(Make Ewha Glorious Again) 2020 Dallas' 라는 슬로건으로 2020년 영상총회를 개최하느라 분주한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등록회원 100여 명, 활동인원 30여 명의 작은 지회라서 총회 개최지로 결정된 후, 개최 2년 전부터 여러 바자회와 음악회를 통해 북텍사스 장학기금 모금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조금씩 총회에 필요한 기념품을 사전에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총회 개최의 본격적인 준비로서 먼저 북미주에 산재해 있는 지회장님들과 컨택을 하고, 35개 지회 중 활동하는 19개 지회장들의 주소록을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지회장과 발전위원회 카톡방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개최 지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복지연 회보 발행을 3월에 완료하여 배포하였고, 4월에는 복지연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5월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총회를 전면취소하고 영상 총회로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연 공식 페이스북(@ewhanaorg)과 유튜브 채널(ewhanaorg)을 개설하여 처음 시도하는 영상총회 준비 및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총회 준비와 함께 매년 5월에 지급하였던 로컬 이화 장학금 6천 5백 달러를 9명의 싱글맘 자녀와 학업 중인 이화 동창들에게 지

급하였습니다. 7월부터 9월은 합창과 교가 제창의 Virtual Choir의 가이드와 영상 제작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특히 많은 대선배님이 익숙치 않은 대용량 파일 전송을 힘들어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1월에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영상 총회 개최를 성공리에 마무리 할 수 있었고, 12월에는 2019년에 국제재단에 세웠던 북텍사스 지회 장학기금에 4만 달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총회 준비를 통하여 단결한 모든 북텍사스 지회 임원분들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회의 모든 선후배님들이 보여주신 이화 사랑의 결과이며, 향후 북텍사스 동창회 역사 속에 큰 자랑스러운 남을 것입니다.



▲ 2년 전부터 달라스 총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북텍사스 지회 동창들

##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PA**



회장 박윤옥  
(간호학 75졸)

필라델피아 지회는 매월 한 번씩 만나 지회 모임을 갖는데, 2020년에는 2월 모임 이후 COVID-19로 인해 비대면 모임을 시작하여 6월부터 줌으로 동창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명 정도의 동창들이 참석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연말 동창회에는 11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2021년도 회장단을 뽑았습니다. 2년간 회장 일을 맡았던 박윤옥(간호학 75졸) 회장이 유임하였고, 회계 이경희(무용학 87졸), 총무 이은아(교육학 91졸)로 구성된 회장단이 2021년도 동창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필라델피아 동창회 명부를 업데이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동창회를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줌 미팅으로 이루어진 동창회에서는 '취미'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동창들이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나누는 정보를 통해 정신적으로

어느 때보다 건강한 시간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장학기금은 Ewha Foundation에 11월 2일자로 천 달러를 보내었고 곧 십만 달러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많은 동창들이 바라왔던 우리 '필라델피아 지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진 필라델피아 지회 화상 모임

## Portland **포틀랜드, OR**



회장 김미진  
(도예 79졸)

이제 대망의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왔네요. COVID-19가 아직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어도, 곧 평범하지만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회는 아직 신년모임도 갖지 못하여서 지회장이 송년 인사와 신년 인사를 지면으로 프린트해서 포틀랜드 지회 동창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창들에게 보낸 인사 편지의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 동창님들.

2020년은 COVID-19 때문에 우리 모두 방콕하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이상한 한해를 보냈네요. 2월에 만나고 한번도 못 모였으니 정말 오래 되었어요. 모두 무사(?)하시리라 믿어요. 조금만 참시면 곧 백신도 맞으시고, 웃는 얼굴로 확진자 말고 화악찐자로 만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영부영 하다보니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면서 밝아오는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에는 모두 반갑게 동창회도 하고 피크닉도 가고 바닷가도 가기로 해요.

슬픈 소식은 박신애(약학 72졸) 동창님이 12월 23일 하늘나라

에 가셨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한인사회에선 아마도 첫 번째 케이스일 거예요. 조문도 장례식도 못가서 동창회에서 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배양희 선배님께서 병환으로 시애틀에서 가족과 지내시다가 24일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영희(가정학 63졸) 동창님께서도 2년 넘게 암투병 중이십니다. 많은 차도가 있으시지만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못하고 방문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곧 만나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강정애(생활미술 63졸) 동창님께서도 병환이 중해서 양로병동에서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동창님들 가정에 사랑이 충만한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이화 동창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 파이팅!!! 아자 아자! 총동창회 소식에 동참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카톡방에 초대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연락주세요.

2020년의 끝자락,

포틀랜드 지회장 김미진(지니) 드림



## Seattle 시애틀, WA



회장 박명호  
(정치외교 78졸)

Evergreen State 워싱턴주 시애틀 지회 소식을 전합니다. COVID-19로 얼어붙은 마음과 달리 유난히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비가 없는(?) 시애틀의 겨울이었습니다. 2월 14일 박명호 회장님께서 '비엔나로의 음악여행'을 주제로 음악강의가 있었으며, 1부는 비엔나 소개, 2부는 빈 필하모니 소개와 빈 필하모니 신년음악회를 리뷰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동창들의 기부금은 연말 한인사회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보냈습니다.

COVID-19로 인해 2020년 2월이후에는 대면 모임을 못하고, 대신에 80여 분의 동창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수시로 동창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모두가 힘들었지만 우리 지회 모든 동창들이 건강하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12월 13일에 줌 미팅으로 열린 연말총회에서는 박정혜 동창의 이화 교가 선창으로 1부를 시작해 회장단과 임원진의 소개, 이사회 결의사항 보고, 각 부서 활동 및 재정보고, 공지사향 전달, 2부에서는 성탄복장으로 참석한 동창들 중에서 Best

## St.Louise 세인트루이스, MO



회장 최혜영  
(생활미술 86졸)

팬데믹 사태로 1년 가까이 모임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1월 28일에 스카이프 콜로 세인트루이스 지회의 신년 하례 모임을 즐겁게 가졌습니다. 우리 지회는 해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서 동창회비를 현금으로 전해 드렸는데, 2020년 총회 가 virtual 이어서 지회원들은 우편으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였고 총동창회로 은행 송금을 하였습니다.

1월 말에는 UCSF 설문조사 선물권을 모아 동창회에서 의미있게 사용하도록 권하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참여해 주시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2월 초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으로부터 'Ewha International Alumnae Endowment'가 목표액이었던 백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세인트루이스 지회 덕분에 매년 모교로 큰 기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 카드를 받았습니다. 작은 정성에 대해 이런 감사 인사를 받고 보니 송구한 마음과 함께 더욱 기금 마련에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모교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3월 23일에 첫번째 화상 모임에서 함께 논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때마다 만찬 사회로 참가자들



▲ 크리스마스 복장 베스트 드레서를 선정하고 있는 시애틀 지회

Dresser 3명과 Game상으로 2명을 선정해 조그만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김성아 동창의 피아노 연주, Christmas Carol Medley 합창으로 마감했습니다. 연례사업으로는 워싱턴 대학 한국학 후원과 한인사회 불우이웃돕기 기금 모금에 참여했으며,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Ms. Elaine Kim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2021년 총회를 개최하는 디트로이트 지회의 황수영 회장님과 회원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북미주 동창 여러분들도 올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는 한나리 동창이 여정 중에 세인트 루이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모든 지회원들이 함께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컸지만 정선주(성악 68졸) 북미주 지회 고문과 최혜영(생활미술 86졸) 지회장이 만나서 동창 간의 아름다운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화상으로 신년 하례모임을 가지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지회



▲ 여정 중에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한 동창과의 즐거운 만남

▲ 이화국제재단으로부터 받은 감사카드

## Toronto 토론토, ON



회장 윤미경  
(사회사업 93졸)

1월 16일 신년 임원회 모임을 시작으로 신축년 새해 첫 출발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조화정(불어불문학 77졸) 동창의 따뜻한 사랑의 기도를 시작으로 역대 회장님들과 신임 임원진과의 반가운 만남을 화상으로 가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으로 각자 소개를 하며 이루고 싶은 소망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임원회 미팅에서는 올해 대면모임을 희망하며 야유회, 단풍관광 등 2021년 연중 행사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현재 팬데믹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화 토론토 동창회 웹사이트에 '동창 비즈니스' 항목을 개설하고 사업체 광고를 무료로 실어줌으로써 동창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안에서만 주로 생활하는 동창들의 건강과 친목 도모를 위해 다양한 동호회 모임들을 비대면으로 활발하게



▲ 영상모임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토론토 지회 동창들

## Washington DC 워싱턴DC



회장 서혜경  
(정치외교 90졸)

워싱턴 DC 지회는 2020년 2월 8일 이사회로 힘차게 활동을 시작했지만 COVID-19의 여파로 모든 오프라인 모임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7월 9일에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American University 경영대학 정교수이자 IT & Analytics 학과장인 이관후 교수님의 온라인 교양 특강을 동창 여러분과 함께 들으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또한 9월 16일부터 10주간 온라인 운동 모임, 10월 18일에 온라인 새 동창 환영회, 11월 16일에는 온라인 대화방을 각각 마련하여 직접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을 달렸습니다.

또한 12월 12일 온라인 총회 및 연말 파티를 개최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동창회 및 이사회의 회계 보고와 활동 보고를 하였

진행할 예정이며, 신설된 동호회를 포함하여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화음 동호회, 목관 악기를 연주하는 화관(花管) 동호회 WE(Woodwinds Ewha), 기타 동호회, 토요일 동호회, 하이킹 동호회, 에어로빅 동호회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햇볕에서는 영상예배를 기획해 팬데믹으로 모두 힘들었던 작년 5월에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라는 고백의 특송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2부 순서에 이상아(한국음악 13졸) 동창의 판소리를 들으며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가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화와 토론토, 북미주라는 공동분모로 맺어진 인연들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며,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힘들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동창들과 함께 걷어가는 삶이기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격려해 주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북미주 지회들을 응원합니다.



▲ 이상아 동창이 판소리로 전해주는 사랑가

고, 2021년 지회장으로 현회장인 서혜경 동창의 연임이 인준되었습니다. 연말 파티에서는 게임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고, 감사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온라인 총회 및 연말 파티를 즐기고 있는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북미주 지회연합회 기금 총액 2,340,908 달러  
 2020년 모교에 지급된 장학금 223,500 달러  
 장학금 수혜자 34명  
\*회계연도 2019.10.1 ~ 2020.9.30 자료제공:이화국제재단

2020년 모교에 지급된 장학금

지회별 장학금		
Atlanta	\$ 5,000.00	김예원 (작곡 4) 외 1 명
Boston	\$ 7,500.00	윤예린 (화학나노과학 4) 외 2 명
Cleveland	\$ 7,500.00	조문선 (수학 3) 외 2 명
Detroit	\$ 7,500.00	김유희 (경영학 4) 외 2 명
Houston	\$ 7,500.00	진하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4) 외 2 명
S. California	\$ 10,000.00	차채연 (전자전기공학 4) 외 3 명
New York	\$ 15,000.00	한태연 (국어교육 4) 외 5 명
N. California	\$ 7,500.00	김경진 (디자인 4) 외 2 명
Seattle	\$ 2,500.00	최예진 (사이버보안 4)
Toronto	\$ 5,000.00	손수진 (사학 3) 외 1 명
Washington DC	\$ 10,000.00	염지원 (철학 4) 외 3 명
<b>TOTAL</b>	<b>\$ 85,000.00</b>	

목적별 이화기금 장학금	
EGPP 기금	\$ 10,000.00
기숙사 건축기금	\$ 2,000.00
마곡병원 (이화서울병원)	\$ 110,000.00
이화개발기금	\$ 5,000.00
이화미래전략기금	\$ 200.00
<b>TOTAL</b>	<b>\$ 127,200.00</b>

동창그룹별 장학금	
남가주 배꽃회	\$ 1,300.00
의과대학 연구기금	\$ 10,000.00
<b>TOTAL</b>	<b>\$ 11,300.00</b>



지회별 로컬 장학금

\*북미주 각 지회에서 지역사회에 직접 수여하는 장학금 (회계연도 2020.1.1 ~ 12.31)

지회명	총액	지회별 장학 및 후원내용
Atlanta	\$ 1,000	미주 한미장학회의 한인 2세 학생돕기
Boston	\$ 6,500	로컬 장학금 \$ 5,000, Christ Methodist Church 후원 \$ 1,500
Cleveland	\$ 400	지역 사회 후원 Woman Kind, Domestic Violence
Houston	\$ 3,200	로컬 장학금 2명 \$ 2,000, Life Ministries 후원 \$ 1,400
Seattle	\$ 5,500	워싱턴대 한국학 전공 학생 1명 \$ 1,000, 워싱턴대 한국학센터 및 불우이웃돕기 \$ 4,500
S. California	\$ 8,500	북미주 유학생 11명, 남가주 동창 자녀 3명
New York	\$ 10,000	대학 재학생 2명, 대학원생 1명
N. California	\$ 1,000	로컬 장학금 2명
N. Texas	\$ 6,500	싱글맘 자녀 9명 후원, 로컬 장학금
St. Louise	\$ 400	청소년 장학금 \$ 200, 게이트웨이 재단 \$ 200
Toronto	\$ 1,000	CAD, 동창 선교사 후원
Washington DC	\$ 8,400	로컬 장학금 \$ 1,400, COVID-19 성금 \$ 5,000, 지역 사회 후원 \$ 2,000

년도	지회명	지회장	학과·졸업연도
1976	Washington DC	김정자	가정학 62
1977	New York	이해경	음악 50
1978	Chicago	전신애	영문학 65
1979	New York	장한희	기독교학 53
1980	Detroit	김신형	가정학 49
1981	S. California	김성자	교육학 61
1982	Chicago	최순자	의학 66
1983	New York	조 연	약학 61
1984	Philadelphia	장창희	가정학 62
1985	Washington DC	한순정	미술 58
1986	N. California	이명희	교육학 62
1987	New York	이부자	사회학 60
1988	Toronto	여정자	기독교학 67
1989	Chicago	최경혜	법학 60
1990	S. California	이희성	영어영문학 60
1991	N. California	최충자	사회학 62
1992	Detroit	김정숙	의학 62
1993	Houston	임예자	사학 65
1994	New York	임병대	교육심리학 60
1995	Washington DC	오성미	영어영문학 63
1996	Boston	김경애	의학 70
1997	Toronto	정인영	물리학 68
1998	Atlanta	김은숙	사학 68
1999	Chicago	윤미혜	사회사업학 64
2000	S. California	김대훈	화학 60
2001	Detroit	차승순	기약 70
2002	Orlando	하명숙	체육학 66
2003	N. California	강영자	기독교학 64
2004	Houston	김성혜	식품영양학 72
2005	Cleveland	이선희	교육심리학 70
2006	Toronto	강선희	교육학 67
2007	New York	최성남	약학 70
2008	Seattle	이정형	약학 63
2009	Denver	이미옥	국어국문학 68
2010	S. California	오명애	장식미술 74
2011	Boston	조수현	수학 76
2012	Vancouver	강유순	약학 67
2013	Washington DC	오혜경	영어영문학 72
2014	N. California	제갈숙경	기약 79
2015	Atlanta	김정희	약학 79
2016	Houston	김명옥	경영학 75
2017	New York	박영숙	경영학 86
2018	Toronto	박현주	물리학 89
2019	Seattle	신경림	장식미술 80
2020	N. Texas	신동진	섬유예술 85
2021	Detroit	황수영	화학 89

No.	주	지회명	지회장	학과·졸업연도
1	AK	Alaska	김명순	간호학 62
2	CA	N. California	이영완	정치외교학 81
3	CA	S. California	남궁봉일	체육학 81
4	CO	Denver	김선희	도서관학 94
5	GA	Atlanta	차희숙	체육학 77
6	HI	Hawaii	이상희	불어불문학 90
7	MA	Boston	신은경	법학 88
8	MD	Baltimore	성주연	약학 66
9	MI	Detroit	황수영	화학 89
10	MN	Minnesota	김정은	체육학 90
11	MO	St. Louise	최혜영	생활미술 86
12	NY	New York	김현우	서양화 82
13	OH	Cleveland	문성애	생활미술 81
14	OR	Portland	김미진	도예 79
15	PA	Philadelphia	박윤옥	간호학 75
16	TX	Houston	한송희	사학 85
17	TX	N. Texas	신동진	섬유예술 85
18	WA	Seattle	박명호	정치외교학 78
19		Washington DC	서혜경	정치외교학 90
20	Canada	Montreal	김명원	수학 92
21	Canada	Ottawa	박진희	생물학 88
22	Canada	Toronto	윤미경	사회사업학 93
23	Canada	Vancouver	이혜숙	건강교육 85



\* 모든 일정과 행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1일 (목)	6:00 PM ~ 8: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미팅
	8:00PM~10: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정기 이사회

10월 22일 (금)	7:00AM ~ 8:30 AM	아침 식사
	9:00AM ~ 4:00 PM	시내 관광 (Ford Factory 및 Detroit Downtown) 또는 소그룹 활동 (선택 가능)
	4:30 PM ~ 5:30 PM	이화합창 연습
	5:30 PM ~ 6:30 PM	각 지회 탤런트 쇼 리허설
	6:30PM ~10:00 PM	총장님과의 만찬, 각 지회 탤런트 쇼

10월 23일 (토)	7:00 AM ~ 8:00 AM	아침 식사
	8:00 AM ~ 9:30 AM	총회
	9:30 AM ~ 4:00 PM	시내 관광 (Ford Museum 및 Ann Arbor) 또는 소그룹 활동 (선택 가능)
	4:30 PM ~5:30 PM	이화합창 연습
	5:30 PM ~ 6:30 PM	리셉션
	6:30PM ~ 10:00 PM	총회 대만찬

10월 24일 (일)	7:00 AM ~ 8:30 AM	아침 식사
	8:30 AM ~ 9:30 AM	예배
	9:30AM ~10:30 AM	총장님과의 대화, 작별 인사

**참가 신청 및 호텔 안내**

- 참가 신청서 및 참가비, 호텔 예약 마감: 8월 30일
- 참가 신청서: 아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발송
  - ① 북미주 지회연합회 웹사이트 [www.ewhana.org](http://www.ewhana.org) 에서 다운로드
  - ② 각 지회장 배포
  - ③ 회보 21페이지 참가 신청서
- 호텔: Sheraton Detroit Metro Airport Hotel (8000 Merriman Rd. Romulus, MI 48174)
- 예약방법: 북미주 지회연합회 웹사이트([www.ewhana.org](http://www.ewhana.org)) 에서 호텔 링크 이용 또는 734-729-2600로 연락, 'Ewha Group Rate'로 예약
- 숙박비: \$149+tax/night (조식 포함, Max 4인 기준)
- 공항 호텔간 셔틀버스: Sheraton Hotel Shuttle 24/7 이용

**관광 안내**

- 미시간 북부 단풍여행  
10월19일(화) ~ 10월21일(목)
- Day1** Mackinac Island Ferry, Island Carriage Tour, Mission Point Hotel
- Day2** St. Ignace, Friske's Farm, Sleeping Bear Dunes National Lakeshore, Shanty Creek Resort
- Day3** Frankenmuth, Christmas Wonderland Shop (단풍 여행은 신청 인원이 40명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 시내관광  
10월 22일 (금) Ford Factory, GM World Headquarter, Detroit Downtown 관광  
10월 23일 (토) Ford Museum,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시내 관광
- 방풍자켓 및 따뜻한 옷을 준비해 오시면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총회 안내**

- 등록: 호텔 도착 후 Registration Room에서 등록해 주십시오.
- 만찬 드레스 코드: 정장이나 드레스와 같은 복장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찬(토요일)에는 이화 교표색인 초록색을 활용한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RISE and SHINE**  
여러분을 **디트로이트** 로 초대합니다!

- 참가 신청과 호텔 예약 마감은 8월 30일입니다.
- 참가 신청서, Check 또는 Money order에 반드시 이름과 졸업연도, 소속지회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 보내실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Payable to:** Ewha Womans Univ. Alumnae Detroit Chapter  
**Mail to:** Ewha Womans Univ. Alumnae Detroit Chapter  
3155 W.Big Beaver Rd. STE 111 Troy, MI 48084
- 호텔 예약은 북미주 지회연합회 웹사이트 [www.ewhana.org](http://www.ewhana.org) 에서 호텔 예약 링크를 사용하거나, Sheraton Detroit Metro Airport Hotel (예약 전화번호 737-729-2600) 에 'Ewha Group Rate'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 관련 문의는 이은정(수학 91졸) 동창에게 연락하십시오.  
☎ 947-886-0811 ✉ [registration@ewhana.org](mailto:registration@ewhana.org)

**2021 디트로이트 총회 참가 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소속지회						
주소	Street				State	
	City				Zip	
연락처	Cell					
	Email					
졸업학과				졸업연도		
동행자수	본인 제외	명			동행자 이름	

행사 날짜	행사 내용	참가비	인원수	합계
10/22(금)	총회 참가 등록비	\$25		
	시내 관광 (Ford Factory / Detroit)	\$100		
	총장님과의 만찬	\$100		
10/23(토)	시내 관광(Ford Museum / Ann Arbor)	\$100		
	총회 대만찬	\$120		
10/19(화) ~ 10/21(목)	미시간 북부 여행(2박 3일)	\$649		
총회 참가비 총액 (USD)				\$



Automotive Lubricants & Specialty Chemicals



Chrysan Industries, Inc. 14707 Keel Street, Plymouth, MI 48170  
Phone: (734) 451-5411 www.chrysanindustries.com

Regional Headquarters  
Shanghai, China | Seoul, South Korea | Nuevo Leon, Mexico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www.ewhafoundation.com



### 도와주신 분들 (가나다순)

진  
후원금 1000달러이상

- 김미애 (의류직물학 84)
- 김혜옥 (체육학 69)
- 박성실 (물리학 86)
- 박정란 (교육심리학 85)
- 박혜현 (생활미술 72)
- 봉숙희 (약학 68)
- 손혜숙 (식품영양학 72)
- 신용자 (의학 69)
- 신인옥 (전자계산학 85)
- 오미령 (식품영양학 77)
- 오주리 (섬유예술 82)
- 유성희 (영어영문학 69)
- 이명숙 (사회생활학 64)
- 이영숙 (약학 70)
- 이지인 (영어영문학 95)
- 이혜경 (신문방송학 69)
- 정영림 (국어국문학 62)
- 조정자 (의학 65)
- 진경윤 (무용 87)
- 차승순 (기악 70)
- 홍옥경 (도서관학 68)
- 황수영 (화학 89)
- 뉴욕라이프

선  
후원금 500달러이상

Chrysan Industries, Inc.  
북텍사스 지회

미  
후원금 100달러이상

- 강수연 (독어독문학 01)
- 김승례 (도서관학 89)
- 김용민 (중어중문학 87)
- 김지현 (특수교육학 88)
- 박혜숙 (외국어교육 69)
- 안민자 (영어영문학 64)
- 임광자 (가정학 63)
- 장서희 (영어영문학 67)
- 최성원 (사회사업학 89)
- Dr. Fran Brown



## 윤경윤 부동산



“ Achievement of the awards of Centurion more than 13 times  
25 years sales experience from Century 21 Town and country as a full time agent ”

“ Sales record Top 10 in state of Michigan in 2020  
Top 1/2% of top 1% in State level and National level top 4% ”

### 사업체 주택 상가 전문

Jinny Yun(진경윤 무용 87졸)

248.840.6278

디트로이트 지회의  
2021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응원합니다!

북텍사스 지회 일동

Wishing continued success to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Detroit Chapter



Dr. Fran Brown

President, Michigan School of Psychology

북미주 지회연합회 106분 이사님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 WONDERS of TRAVEL

## 차승순 여행사

대표 차승순(기약 70줄)

[travellers.com/annarbormi](http://travellers.com/annarbormi)

734.827.1030

[sue.act@travellers.com](mailto:sue.act@travellers.com)

[mina.act@travellers.com](mailto:mina.act@travellers.com)



## 윤정란 건강보험

JENNY YOON AGENCY (박정란 교육심리학 85줄)

- \* 회사 건강보험
- \* 개인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포함)
- \* MEDICARE SUPPLEMENT
- \* SHORT TERM INSURANCE



248-841-1834(W) 248-210-8061(C)  
888-857-0005(F) [jyoonagency@gmail.com](mailto:jyoonagency@gmail.com)



Illustration by Freepk Story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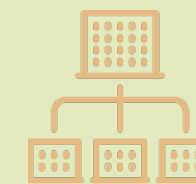
택스 및 회계전문

## MAX & ACCU INC.



### Bookkeeping & Accounting

Max & Accu offers quality service that is quick, affordable, and organized



### Korean Company Admin Services

We specialize in the automotive parts industr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Consulting Services

Whether you are in need of assistance with your taxes or too busy to do them yourself, Max & Accu, Inc. has got you covered.



### Global Services

We are confident that we can cover any concern you may have, whether it be in-state, nation-wide, or outside of the country.

## 황수영 세무법인

대표 황수영(화학 89줄)

248-712-1008

[accounting@max-accu.com](mailto:accounting@max-accu.com)





# Detroit R&D, Inc.

NIH SBIR Grant-Supported 연구개발(R&D)  
for Disease Biomarkers & Tools for Drug Development

## BioTarget® Hypertension, Stroke, Diabetes ELISA

BioTarget® ELISA 를 사용해서 심장병을 일찍 발견하면 생명을 살립니다



[www.youtube.com/watch?v=zG8W\\_sXZwCg](http://www.youtube.com/watch?v=zG8W_sXZwCg)

이 링크가 안되면 youtube 를 연 뒤 youtube 검색란에 "14,15-DHET"를 치면  
"14,15-DHET Hypertension, Biotarget" 비디오가 있습니다



Featured on Discovery Channel

Visit [www.detroitrandd.com](http://www.detroitrandd.com)

### Hyesook Kim (손혜숙), Ph.D. Founder and CEO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72)  
웨인주립대학 의과대학 생화학 박사  
NIH NRSA Postdoctoral Fellowship Awardee  
웨인주립대학 환경과학 연구소 겸임교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도나 안내서는 필요없습니다.

삶의 최선을 다하는  
플랜에 초점을  
맞추세요.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서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SMRU 1791699 exp. 12/31/21  
© 2019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51 Madison Avenue, NY, NY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2021 MICHIGAN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북미주지회연합회)를 축하합니다.



Moonsoon P. Lee / 박문순  
917-886-9831  
New York, NY  
1962 - 1966 / 사학과



Soon Hwan Hong / 홍순환  
213-700-8266  
Los Angeles, CA  
1970 - 1974 / 비서학과



Hae Hyun Moon / 이혜현  
253-205-7561  
Seattle, WA  
1970 - 1974 / 도서관학과



Helen Yoo / 이혜진  
213-820-6551  
Los Angeles, CA  
1977 - 1981 / 건강교육학과



Keisun Na / 나계선  
410-971-6767  
Washington  
1983 - 1987 / 철학과



Hyejin Cho / 조혜진  
310-387-1334  
Los Angeles, CA  
1985 - 1989 / 장식미술학과



Kyungeun Kim / 김경은  
972-589-1828  
Dallas, TX  
1989 - 1993 / 행정학과



Sunjin Kim / 김선진  
678-575-1137  
Atlanta, GA  
1990 - 1994 / 종교음악과



Myungjoo Lee / 이명주  
734-604-7656  
Okemos, MI  
1991 - 1995 / 법학과



return address: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Detroit Chapter  
3155 W. Big Beaver Rd. STE 111  
Troy, MI 48084

To.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미주 지역의 이화여자대학교 동창모임으로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본교 총동창회에 등록되어 있는 23개 북미주 지회의 연합을 의미하며 매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창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의 지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계속 간직하고 이화인으로서는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이화 그린 네트워크 안에서 긴밀히 연결된 이화인의 힘을 느끼고 교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